

# 파울 틸리히의 문화신학적 견해로 본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성 조명

박세종 목사(문화선교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기독교인은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고, 스스로 언제나 새로이 세계의 더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안에서 확고한 신뢰(Zuversicht)를 가지고 책임성 있게 개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세계를 향한 책임성을 올바르게 위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되어져야 하며, 또한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화 되어져야 한다.

틸리히의 말을 빌리자면, 기독교는 최고의 진리의 조건을 갖춘 종교라 하였다. 이 말은 기독교가 무엇보다 이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 있는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문화 속에 들어 있는 인간 정신의 실행, 즉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인 종교성이 사라졌다. 이는 인간이 현대 문화 속에 직면한 정신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오늘 현대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불어 닥친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 유럽은 다양한 형태로 정신과 종교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오늘날 급변하게 다원화된 세계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무엇보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와 문화를 위한 책임성이 있는 역할을 필요로 한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줄곧 유럽에서 모든 문화와 기술,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21세기 또한 유럽이 가지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유럽은 반대로 자기 기만과 속임에 빠져 있다. 여전히 기독교적 우월사상에 빠져 기독교의 오만함만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것으로부터 외면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현재적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사회 정화 작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한국의 기독교가 도리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남북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진지한 고민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단 유럽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기독교 사상 위에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세계화로 인하여 이제 세계는

지역적인 만남이 아니라 다원적인 만남과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종교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위에서 타 종교 타문화를 이해하려 할 때는 언제나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종교 타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유럽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사상위에서만 유지되어지지 않고 타종교, 타문화가 공존하는 거대한 문화 팽창, 종교 팽창적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종교간의 문제, 다원 문화간의 이해가 절실히 졌다. 틸리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르게 풀어가기 위하여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에서의 만남과 더불어 진지한 내적인 토론을 가지길 원하였다. 특별히 급격한 변화와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독교는 무슨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할 시점에 놓여졌다.

## 2. 정신 문화의 주도적인 역할로서의 기독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21세기의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화 사회(information oriented society), 세계화(globalization) 등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는 커다란 문화 충격 속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전통적인 문화 가치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고 방식의 전환을 강요 받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회는 자연을 바르게 해석해 보려는 시각과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 갖는 견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한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종교적 초월 경험에 대한 영적 질문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문명 그 자체가 문명의 토대인 자연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평화”를 회복하는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요소로서 삶의 본질과 가치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적 풍토에 의하여 매몰되어 버렸거나 상실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본질의 심연의 차원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종교성’의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왜 종교성이 문화의 일차적 특성이 되어야 하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모든 본질적인 관심은 인간의 외적인 삶의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교 없이는 초월적이고 삶의 참된 가치들 (예를 들면, 선, 진리, 정의, 사랑, 자유, 희생, 우정, 평화, 명예, 인격 자체 등)에 관한 권위와 존재론적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단지 공허한 목소리로서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헛된 열망과 공허함 속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시대적 정황을 통하여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무신론주의(atheism)가 신의 죽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종교가 인간의 소외, 문화의 왜곡,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아주 잘못된 거짓말과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인간이 누리는 종교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인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도 바르게 인지할 수 없고, 더더욱 허무주의의 심연 속으로 빠질 위험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그 동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종교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유의식과 허무주의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안에서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회의를 새로운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실망과 무의미로서 경험 되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빼돌어진 문화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종교가 실제로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삶의 입장은 다만 인간의 삶을 위한 근대시대 안에 있는 합리성을 위한 기반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무미건조한 삶의 내적 정신을 위한 향유의 수단이거나 과학시대에 반하는 하나의 역겨운 도구로서 인식되어버렸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현대 문화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가정, 학교, 직장 등)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보여주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현대 문화의 위기적 상황이 다만 이러한 그릇된 합리주의 위에서 그 근거가 되어질 때, 이러한 합리성은 인류에게 도리어 큰 위기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객관주의 사고와 자연주의의 이반(離反) 속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 **3. 현대 문화의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의 회복의 도구로서 기독교 모색**

기독교가 왜 인간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더욱 종교적 상징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톨리히의 문화 신학적 견해를 다시금 우리의 이해선상에 올려 놓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톨리히의 문화신학적 관점이 단지 지난 20세기 속에 있는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21세기 속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르게 대항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되어지기 위하여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와 문화가 서로 상호관계로서의 회복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톨리히의 문화신학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당면한 현대사회 속에 나타난 종교와 문화의 분리적 사고로부터 다시금 재결합을 위하여 톨리히의 문화신학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톨리히의 궁극적 관심은 히브리적 영성에 근거한 문화신학적 표현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종교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 관심이며, 신앙이란 궁극적 관심을 통하여 사로 잡혀 있는 현재적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톨리히는 성서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특별히 종교와 문화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궁극적‘ 또는 ,무조건적(영ultimate, 독 letzte 또는 unbedingt)‘이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통전적인 내면의 행위를 위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커다란 심연 속에 자리잡고 있는 심리적 상태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관심(영 concern, 독 Anliegen)이라는 말은 신앙의 대상인 절대자를 향하여 고백과 헌신, 그리고 경외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하여 „본질적인 관심“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인 관심과 무한한 열정, 즉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의 토대 속에서 행하는 „존재로의 용기“(영Courage to Be, 독Der Mut zum Sein)가 현실화 되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적인 참여의 절대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냐 비존재냐“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현대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퇴색되어져만 가는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하여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희망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가운데 놓여져 있는 궁극적 관심을 향한 하나의 새로운 의식운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 영원한 삶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바르게 다루기 위해서이다.

톨리히는 특별히 인간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마성적 요소와 세속적 요소의 위험을 견디어 내고 진정한 자기초월적 경험을 할 때에 ,궁극적 관심‘의 진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한 톨리히의 주장은 오늘 21세기 사회에서 더더욱 필요한 강조점이 아닐 수 없다. 톨리히의 문화신학에 드러나고 있는 종교적인 색채는 반드시 제도적이거나 전통적인 종교범주에 국한해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현재 제도화된 체제 안에서 주어진 종교는 언제나 진지하게 고찰해야만 한다고 톨리히는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현재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종교 안에서 주어진 문제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전히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만 „궁극적 관심“을 찾으려 한다면 인간 스스로에게 무미건조하게 보여지는 종교로부터 궁극적 관심에 대하여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 오늘의 급격하게 발달된 문명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공허감과 상실감,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주거나, 일차원적인 존재방식만을 강요당하여 거기에 몰입되게 만든다면, 현대인은 또한 인간의 곤궁함과 소외감으로부터 여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은 ,참된 궁극적 관심(영, ultimate concern, 독 das letzte Anliegen)‘으로서가 아니라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관심의 요소(영 preliminary concern, 독 das vorlufige Anliegen)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마성적인 요소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곤궁함과 소외감에 대한 피로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세계를 향하여 확실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궁극적인 계시는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톨리히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그의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궁극적 계시의 현현자로서 다가오시고 몸소 보여 주신 것이다.“

파울 톨리히는 모든 종교의 대표자로서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즉, 궁극적 계시의 기적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또는 궁극적 계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에게 속하는 일이며, 만약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처럼, 궁극적 계시는 모든 계시와 마찬가지로 상호 관련적인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계시, 곧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의 정신문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야 말로 모든 계시의 본질적인 목표와 완성으로서 모든 계시의 종국으로서 모든 계시의 척도로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무리 종교의 본질과 의미를 무시하면서 세상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스스로 최종적인 시간이나 궁극적인 자리에 다다르게 될 때, 다시금 진지한 종교성의 자리로 회귀하게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영원하거나 온전할 수 없으며, 아무리 외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죽음, 정신, 삶의 의미 등등에서 말이다. 톨리히는 역설하기를 궁극적인 계시를 통하여 나타난 문화와 종교의 척도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종교의 기준으로서 해석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집단 속에 있는 사회적인 실존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이고, 모든 개인의 개인적인 실존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이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왜 오늘날 다시금 잃어버린 정신문화를 새롭게 회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향한 인간의 본성의 회복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 관심의 회복은 종교성을 새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의 부정적 면을 제거하고 인간의 종교적 표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4. 인간의 죄성과 소외의 극복으로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성(기독교 문화) 정립**

오늘날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화가 지속되어지고 개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개인화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인간과의 관계성의 부재가 급속한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의 현대사회는 분명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문화적 생산과 소비는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문화가 일상 삶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관여하고 심지어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문화적 생산물을 통하여 인간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르는 문화적 소비욕구까지 생산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대중문화를 통하여 현대인들은 소비욕구와 감각적 본능을 부추기는 끊임없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죄성과 소외에 관한 문제의식에는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오히려 사회 구조 속에서 점점 이러한 대중문화의식 속에서 무관심해 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간의 현실적 감각에만 의식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틸리히는 이미 우리의 현대문화에 관한 진보를 언급하였고,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질문의 일부를 나열하였다. 틸리히는 소위 크리스찬 국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과 미약한 활동으로부터, 세속적인 자기만족의 교리로부터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동시대의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 메시지가 확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려면 그것은 또한 현재 세계의 상황의 깊이를 측량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현재 기독교는 엄청난 이중적인 임무 앞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 복음의 힘과 진리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세속 시대를 추구하려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는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역들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T. M. Greene는 기독교에 대한 3가지 세속적인 태도를 언급한다: 왜 기독교가 기독교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오늘날 무시되고 거절 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이다. 첫번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부분적으로 나약함과 무관심으로부터 일상적인 책임들과 즐거움과 함께 하는 열중으로부터 다른 문화와 시대 안에 있었던 자들 말이다. 이들을 두고 일반 사람들의 보통적인 태도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노력과 삶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한 인간 본능적인 욕망의 조심스러운 접근 등을 의미한다. 두번째 순진하고 왜곡된 자연주의적 인간의 태도를 의미한다. 세번째는 인본주의에 대한 확신 또는 불안감이다.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호감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으로서 단지 인간복지와 더불어 깊게 관련 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세에 대한 관심과 인간 개개인의 가시적인 삶의 복지와 행복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한 수단과 과정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과 크리스천 사이에 나타난 이슈는 사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그 자체가 감소 되어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크리스천의 믿음이 틀렸다고 가정할 경우, 크리스천들은 결국 전심으로 헌신해야만 했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하여 시간과 에너지들을 다 써버리고 비극적인 환상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단지 추상적인 학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모든 개념들 너머의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틸리히는 인간 실존상황의 곤궁 또는 소외의 현상을 ‘모호성’(영 ambiguity, 독 Zweideutigkeit)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호성’이란 불분명한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실존이 처한 존재양식의 이중적인 불안감과 갈등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호함과 이중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존재방식으로서, 개체화(영 individuation, 독 Individualisation)와 참여(영 participation, 독 Partizipation), 형태(영 form, 독 Form)와 역동성(영 dynamic, 독 Dynamik) 그리고 자유(영 freedom, 독 Freiheit)와 운명(영 fate, 독 Schicksal) 등과 같은 이중적이고 비전통적인 구조 안에서 드러난다. 인간 실존은 더욱 본질과 실존, 무한의식과 유한의식, 원죄와 원축복, 존재 부정의 경험(die Erfahrung des Unrechtes des Seins)과 휘브리스(Hybris)와 같은 양자 간의 갈등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틸리히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번 강조하기를 이러한 인간 실존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인간의 종교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은 종교적 상징이나 신학적 종교적 용어로서 표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화 속에 드러난 모든 예술 작품들 속에서 설득력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보다 조형예술, 시, 문학, 연극, 미술 그리고 음악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여,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인간의 삶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의 형식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그것을 활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인간 내면의 진지한 내용을 그러한 외적인 형태나 형식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은 도리어 역동적인 노력과 생명의 창조의 자유를 위한 강요된 수단으로서 악용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존은 여전히 무한한 자유와 끝없는 자기 실현을 꿈꾸지만, 인간의 현실의 삶은 역사적이고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고난과 죽음과 같은 운명적인 만남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만남 위에 놓여진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틸리히는 인간이 직면한 소외현상이자, 삶의 모호성으로서 정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잃어버린 내면의 깊이 내재되어 있는 궁극적 관심에 다시금 사로 잡히게 된다면, 곧 현재 인간 실존의

모호하고 이중적인 소외의 현상으로부터 극복 되어지고, 인간이 새로운 구원의 체험과 은총의 실재를 일시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신비의 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늘의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성의 갈등과 인간 정신의 피폐한 메마름으로 인한 인간의 본질적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존재자”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바르게 인간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형식과 방식으로는 이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밝혀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도구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고 이해시켜야만 할 것이다.

발제자: 박세종 목사

(현재, 문화선교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며, 독일 마인츠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Johannes Gutenberg Universitt Mainz)에 있는 조직신학과 사회윤리 분야에서 Prof. Dr. Walter Dietz 교수에게 „현재적 상황에서 바라본 파울 틸리히의 문화신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함으로 박사과정(Dr. theol)을 마쳤습니다.)